

어린이를 위한 현대미술 페스티벌 열려요

전남도립미술관, 11일 개최
‘미니드로잉’ ‘미술관 에티켓’ 진행
클래식 공연·인형극 등 행사도

오늘의 미술관은 특정 관람객만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미술 전시뿐 아니라 체험, 공연, 워크숍 등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현대미술 페스티벌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미술관 개관 후 첫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 미술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일명 ‘2023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 즐거운 미술관’이며, 주제는 ‘언제나, 누구나, 예술로 즐거운 미술관’.

오는 11월 11일(오전10~오후 6시)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어린이의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이 미술관에서 예술을 모티브로 상상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 현대미술의 가치와 예술의 다양성을 즐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작가&작품과 소통하는 현대미술 워크숍(2종 4회), 체험프로그램(10종), 공연, 인형극 등(4종)이다.

먼저 ‘즐거운 미술관’은 내가 경험한 미술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어린이 미술대회다. 전남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상별로 2개의 부문(창의적 표현상, 즐거운 이야기상), 총 60점을 선정하며 수상작 어린이는 제1회 전남도립미술관 어린이 작가로 위촉된다. 또한 미술관 어린이 전시에 참여 기회가 제공되며 내년 어린이 자문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대미술을 매개로 상상력을 키우는 ‘JMA 창작 워크숍’은 소장품&작가 연계 교육프로그램이다. 미



전남도립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어린이 프로그램 중 한 장면.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술관 소장품인 자비에 베이앙의 ‘Bird n 2’와 연계한 창작활동으로 가족만의 조각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이다. 운세열 작가와 10미터 길이의 수목 드로잉을 완성한다. 향후 야외 시민광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야외 시민광장에서는 놀이 공간,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 어린이 화가가 돼 가족 자화상을 그려보는 ‘당신을 그려 드립니다. I’와 다양한 액자가 인쇄된 대형 벽면을 관람객 작품으로 하나씩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는 예술가입니다’가 펼쳐진다. 바닥에 설치된 피아노 건반을 연주하는 ‘워킹 멜로디’는 예약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배은하 작가와 함께 미니 캔버스에 팝아트를 그려보는 ‘미니 드로잉’을 비롯해 각자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아이싱해 얼굴 모양 쿠키를 만들어보는 ‘맛있는 드로잉’,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색깔해 판버튼을 만드는 ‘미술관 에티켓’도 진행된다. 이밖

에 미술관 세프에게 주문한 클레이로 미니 조형물을 제작하는 ‘맛있는 미술관’, 페이스 페인팅 체험 ‘킬러 페이스’ 등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미술관 내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디지털 자화상을 그려주는 ‘당신을 그려드립니다. II’, 예술과 함께한 경험을 그림일기로 표현하는 ‘미술관 그림일기’도 진행된다.

가족이 함께 오감으로 느끼는 다채로운 공연도 눈길을 끈다. 카파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과 동요를 연주하는 블리스 앙상블의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마리오네트 인형극과 마음을 결합한 창작극단 분홍양말의 인형극, 배트맨과 함께하는 매직 버블쇼 등도 예정돼 있다.

한편 ‘2023 JMA 어린이 미술 페스티벌: 즐거운 미술관’은 전남도립미술관이 주관하고 LFS케이광양점이 후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공연 장면.

〈전남문화재단 제공〉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 ‘애니 콘서트’

전남문화재단, 4일 남도소리울림터...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첼로앙상블의 애니메이션 멜로디.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애니 콘서트’를 오는 4일 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연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영화 OST와 전래동요 등에 현대성을 가미, 서울솔리스트첼로앙상블(음악감독 송희승)이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알라딘 삽입곡 ‘A Whole New World’가 막을 연다. 주인공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양탄자를 타고 날아다니며 부르던 노래로 수십년 간 인기를 끌었다.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오리지널 트랙도 첼로 선율을 입는다. 동명의 곡 ‘미녀와 야수’는 1992년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외 인어

공주 OST ‘Under the sea’,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 등은 세대 불문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작품들이다.

영화 속 노래도 감상할 수 있다. 캐리비안의 해적 중 ‘그해 해적’이 바로 그것. 또 세계적인 인기물이에 성공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주제곡도 울려 퍼질 예정이다. 이외 한국 전래동요 ‘자장가’, 창작동요 ‘꼬부랑’도 재해석해 울려 퍼진다.

전남문화재단 김은영 대표는 “전국체전의 큰 성과를 이룬 장애인체전이 이어받길 바라는 마음을 음악 콘서트에 담았다”며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 모든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를 발굴해 공연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남도소리울림터 누리집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역기반 독창적 디자인 ‘눈길’

달콤한 무등산 수박 ‘광주의 향기’
사슴모양 유아의자 ‘루비 라이트’ 등

오래 전 광부들은 가스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새장에 카나리아를 넣어 경도에 들어갔다. 공기질을 파악하는 데 카나리아를 활용한 것. 이러한 사실에서 모티브를 얻은 ‘카나리아 대기질측정기’는 공기질이 탁해지면 조명의 색깔이 바뀐다. ㈜디자인바이 최태욱 대표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2023년 세계 3대 디자인으로 꼽히는 독일 레드닷(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광주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언급한 ‘카나리아 대기질측정기’ 외에도 ‘광주의 향수’, ‘주상절리 의자’ 등이 그것.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 구세나 작가, ㈜센트은이 선보인 ‘광주의 향’은 무등산수박을 베이스노트로 만든 향수 제품이다. 무등산 수박 특유의 은은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운다.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제품은 또 있다. 서석대와 입석대의 주상절리를 모티브로 한 블록타입의 다용도 의자가 그것인데, 작품 뒤로 펼쳐진 무등산 풍경은 지역 미디어아티스트 신창우 작가가 연출했다.

광주 디자인 업체인 제미크리의 ‘아이의 집’은 사



‘영제너레이션의 집’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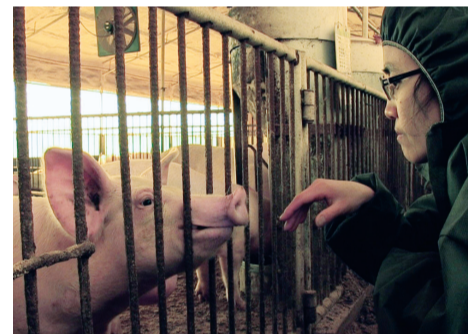
슴모양 디자인의 유아용 의자 ‘루비 라이트’로 눈길을 끈다. 둥그런 빨과 오목하게 들어간 등은 아이들이 앉았을 때 안정감을 준다.

또한 광주지역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코리아디자인멤버십 회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제너레이션의 집’은 MZ 세대의 가치관, 경험이 토대가 됐다. 염서를 만들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4관의 글로벌 디자인 전시코너에서는 광주지

역 디자인 전문회사와 중소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공기살균기, 자율주행 로봇, 정찰용 드론, 수질정화시스템 ‘에코비’ 등 다양한 제품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광주의 고유 자원을 테마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제품이 많이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며 “출품된 지역의 우수 디자인, 특화자원을 모티브로 한 상품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잡식가족의 딜레마’



‘그겨울, 나는’

‘가족의 의미’ 영화에서 답을 찾다

광주독립영화관, 2~3일 무료 상영회·감독과의 대화

광주독립영화관 GIFT(관장 한재섭·영화관)는 상영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를 오는 2~3일 영화관에서 선보인다. 무료 상영회와 다양한 GV(게스트 만남)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일 오후 4시에 상영될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할머니의 연금과 물건을 훔쳐 가난하지만 행복한 어느 가족이 흩어지게 되면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는 내용이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에는 ‘잡식가족의 딜레마’도 볼 수 있다. 구제역이 휩쓸고 간 한국을 배경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들을 마주한 뒤, 주인공이 육식하던 삶을 고민하는 작품이다. 최근 ‘수라’로 반향을 일으킨 황윤의 작품으로, 영화 상영 뒤 GV도 마련된다.

가족의 범주에 속해있지 않던 소외자, 동물

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3일 오후 4시에는 유랑하던 이들이 가족을 이루는 이상문 작 ‘고속도로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어 오후 6시 40분 오성호 작 ‘그겨울, 나는’은 청춘, 돈, 사랑 앞에서 고민하는 주인공들을 매개로 가족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상영 후에는 오성호 감독을 만나는 GV도 예정돼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본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며 “현대사회의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지,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는 영화를 통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관람.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